

무굴제국과 실�크로드



강사: **아프잘 아흐메드 칸 (Afzal Ahmad Khan)** 교수

인도 네루대학교 한국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인도 델리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쳤고, 현재는 경북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와 관련된 한국 문학작품 등에 대한 글을 국내 언론에 기고하거나 특강을 하면서 한국문학 연구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최인훈의 「가면고」에 나타난 「가면」의 의미 연구- 인도의 브라흐마교의 사유에 근거하여-», 「한국의 「서유기」와 중국·인도 문헌 속 원숭이와의 상관성 연구」가 있다.

실�크로드를 논의할 때 인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불교가 인도에서 실�크로드를 통해 동아시아에 들어와 전통문화가 되었기에, 실�크로드는 인도와의 교류에 있어서 중요하다. 실�크로드를 이해하려면 서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실�크로드와 연결되었던 나라들을 지배했던 몽골제국의 후손인 무굴제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굴제국의 창시자인 바부르는 실�크로드의 중심부에 있는 사마르칸트 및 부하라를 떠나 인도로 가서 분열된 인도 왕국들을 통일시켜 대제국의 기반을 튼튼하게 닦았다. 이후 무굴제국은 조상의 고향 사람들과 문화적 연대감을 활용해 일찍부터 인도를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나라로 만들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무굴제국의 5대 황제와 그들이 남긴 유산을 소개하면서 몽골과 페르시아의 문화를 계승한 무굴제국의 역사를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 이것은 실�크로드의 인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다.